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 이별주

선조 34년(1601).

김억추는 충청병사를 제수 받자 동생 김기추와 김인복을 군관 삼아 데리고 올라갔다. 팔이 하나 없는 김인복은 어디로 부임 해가든 부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므로 각별하게 배려했다. 동생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것은 형의 도리를 다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도 김억추는 마음이 개운하지 못했다. 선친의 삼년상을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큰 불효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라에 불충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무술년(1588년)에는 경상방어사 겸 밀양부사, 재작년(1589)에는 경상좌병사, 작년에는 제주병사를 임명받았지만 삼년상 중이었으므로 들쭉날쭉 충실치 못했던 것이다.

김억추는 무술년에 별세한 좌의정 김응남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말이 새삼 떠올랐다.

“의리가 읊으믄 충신이 아니요 사사로운 정이 읊으믄 효자가 아닌 것 같그만요. 요럴 때는 어치게 해야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 두 가지, 충과 효를 온전히 같게 할 수 있을게라?”

“효도의 도리란 아버이를 섬기는 것이 시작이요, 임금님을 받드는 것이 중간이요, 이름을 날리는 것이 마지막일 텐데 그대는 충과 효를 겪었으니 이제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인즉 그대가 아니라면 누구겠소?”

충청병사 관아가 멀리 보였다. 그런데도 김억추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자 김기추가 물었다.

“성님, 몸이 불편허신게라우”

“땀이 편치 않그만.”

“아부지 삼년상 땀시 그러지라?”

“은젠가 좌의정 대감께서 효도의 시작은 아버이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시드라. 상례의 시작을 다 하지 못한 채 가고 있으니 땀이 영 불편허다야.”

김인복이 끼어들어 말했다.

“성님, 잊어부씨요. 박천을 떠날 때 원근사람덜이 모다 위로 하고 감복허지 않았는게라. 성님 같은 효자는 읊다고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뒤에나 지극 정성인 사람은 만추만한 동상이 읊어야. 만추 동상은 복 많이 받을 것이다.”

“고거야 우리덜이 나가서 싸울 때 만추 성님은 재가봉친허기로 약조했응께 그라지라.”

김기추가 형제간에 약속한 김만추 역할을 강조하며 한 마디 했다.

“니덜 말은 고맙지만 나는 부덕하여 충도 효도 내세울 것이 읊어야. 임진년에 임금님 대가를 호종함서 세웠던 내 원이 뭇이었는지 아느냐?”

“왜적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었겄지라.”

“고건 걸으로 드러난 원이었제.”

“속맘이 따로 있었단 말인게라?”

“나라가 풍전등화 같았을 때 내 속맘은 수길(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머리를 베어다가 임금님이 겨시는 북궐(北闕)에 거는 것이었제.”

김기추가 큰소리로 말했다.

“지보다 성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으디 있겄소. 성님이야 말로 충도 효도 다 갖춘 분이시라.”

“하늘이 우리덜을 보고 웃겼다야. 성제덜이나 자신의 입으로 충이니 효니 자화자찬허지 않는 뱀이다.”

충청병사에 부임한 김억추는 다음날부터 전쟁으로 부서진 관아 건물들을 복원하는 일부터 했다. 군적 정리나 무기고, 군창 등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작했다. 그렇다고 양민들을 함부로 울력에 동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피난 갔던 양민들이 편안하게 고향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난민들이 군역에 종사하지 않은 허물도 묻지 않았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난 갔다가 돌아왔으므로 천재 지변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였다.

생고생한 군관들이 죄를 묻자고 주장했지만 김억추는 그들을 설득했다.

“그대덜이 보지 않았는가. 길바닥에 해골이 나뒹군 지난 시절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네. 피난민덜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부렀다고 해도 불문에 붙여야 허네. 고향은 어머니 멍기로 피난민덜을 모다 품어주어야 허네. 오히려 돌아온 피난민덜을 고맙게 여겨야 쓰네. 묵은 논밭이라도 피난민덜 손길이 미쳐야만 농작물이 다시 자랄 거 아닌가.”

김억추는 봄이 되자 관아에 있는 정예 군사를 풀어 양민들의 농사일을 거들게 했다. 그는 함경도 무이보 시절에 군전을 일구고 감독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런 조치들을 자신 있게 내렸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다. 선전관이 공문을 한 장 가지고 달려왔다. 영의정 이항복이 전라좌수영을 순시한 뒤 상경하여 선조에게 이순신 신위를 봉안할 사당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그곳에 충민사를 짓게 됐는데 충청병사도 지원하라는 어명이 적힌 공문이었다. 충민사 건립에는 삼도수군통제사 겸 전라좌수사인 이시언이 총감독을 맡는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다.

김억추는 동생들을 불렀다.

“기추야, 인복아. 이통제사 사당이 여수에 세워질 모양이다. 협력하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기추는 여그서 차출할 수 있는 목수덜을 알아보그라. 그라고 인복이는 군창에 곡식을 점고해보그라. 아마도 목수덜 요미로 많은 군량이 필요할 것인께.”

“예, 병사 성님. 근디 시방 통제사는 누구신게라?”

“이시언 장수다. 여그 충청병사를 지내다가 내려간 분이제.”

“소문인디 육전에는 능허지만 수전에는 서툰다고 허던디요.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닌게라?”

“사변이 종식됐으께 먼 상관있겠느냐.”

“좌의정 대감이 살아져셨으믄 성님을 추천했을 거 같그만요.”

“느그덜은 으째서 머리를 복잡허게 굴리고 사느냐. 장수는 입이 읊어야 헨디 말이다.”

목수들은 병영성의 말을 주어 태워 보내고, 군량은 충청수사의 협조를 받아 배편으로 운송하면 될 터였다. 김억추는 그날 밤 해시쫘 벼루에 먹을 갈았다. 오랜 만에 목향이 동헌방 안에 번졌다. 칼과 활만 잡고 살아왔던 무장이 시를 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

김억추는 이 통제사가 순절했다는 공문을 받고 오열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순신은 함경도 시전부락에서, 명량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그의 상관이자 동지였으므로 더욱 한스러웠던 것이다. 김억추는 머릿속에서 맴도는 시상을 글로 풀었다. 이순신을 추모하는 시였다.

남녘 진압한 의리와 절의를 지금 누가 세웠는가  
바로 이순신 통제사께서 세상을 구제하시던 때에  
영웅은 한번 떠남으로써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니  
나도 비탄에 빠져서 머리를 돌리기조차 더디구나.

鎮南節義今爲誰  
正時李公濟世時  
英雄一去死於死  
使我悲兮回首遲

다음날 아침 일찍 김억추는 동생들을 또 불렀다.

“일각이 여삼추여. 목수덜허고 군량은 점고해봤냐?”

“예. 병사 성님.”

“그라믄 즉시 기추는 목수덜을 델꼬 전라좌수영으로 가고, 인복이는 군량미를 선적허고 나서 배를 타고 가그라. 모르긴 해도 물자가 부족헌께 모다 손을 놓고 있을 것이다. 지긋지긋헌 사변 7년에 뭇이 남아 있겠느냐.”

이순신 추모시를 건네받은 김기추는 며칠 뒤 바로 충청병영성을 떠났다. 김인복은 군량을 배에 실어야 했으므로 더 늦게 출발했다. 충민사를 건립하는 데 충청도는 물론이고 전라도, 경상도 관아에서 물자와 인원을 능력껏 지원했다. 전라도의 수사와 첨사, 군수, 만호들은 할당받은 책임량이 많았으므로 더 애를 썼다.



충민사가 조성되고 있는 중에 김억추는 여주목사로 부임해 갔다가 전라병사를 제수 받았다. 그런 뒤 충민사 건립 공로로 선조에게 조선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보물인 산호채찍(珊瑚鞭)을 하사받았다.

전라병영성은 고향 강진에 있었으므로 몸에 병이 생기더라도 맡은 바 공무를 다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김억추는 뚜렷한 병명을 모른 채 가끔 시름시름 앓고 있던 중이었다. 조선 삼천리 전장 터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풍찬노숙한 몸이 낡은 수레바퀴처럼 닳아버린 탓이었다. 반석 같은 그의 어깨는 점점 허물어지고 낙락장송처럼 흰칠했던 그의 허리도 어느 새 굽어지고 있었다.

전라병영성은 예전처럼 변함이 없었다. 임란 동안 무너졌던 성은 견고하게 단장한 상태였고, 성 밖의 초가들은 새롭게 이엉을 얹어 산뜻했다. 수인산 망루에서 보면 금강천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박천마을은 병영성에서 지근거리에 있었다.

금강천 좌우로 펼쳐진 들판에서는 벼들이 강진바다의 파도처럼 파랗게 물결쳤다. 박천마을이 가까워서인지 김억추의 친인척들이 자주 병영성을 들락거렸다.

하루는 김만추가 찾아왔다.

“영우 제사상은 잘 철상했그만요. 아버님은 좋은 디로 가셨을 거 같어라우. 금곡사 스님덜이 따로 사십구재를 지내줬는디 고로코름 말허드랑께요. 인자는 성님 건강이 걱정이어라.”

“사실은 충청도 올라갈 때부텀 숨이 쪼깐 가쁘더니 인자 허리도 쭈셔불고 그런다.”

“성님이 고향으로 오신께 지 맴이 놓이그만요. 금강천 쏘가리 많이 자시고 심을 내셔야지라. 남당포 싱싱헌 돔새끼도 맛이 아조 좋아라.”

“고상은 니가 쥔 많이 했제. 재가봉친이 을매나 에러운 일 인지 나는 안다. 니가 우리 성제덜 중에 효 제일이여.”

“이이고메, 병사 성님. 고런 말썸 마시씨요. 나는 원래 체력이 약골이어서 집안에 남은 것이제, 효도 잘한다고 남았대요? 성님이야말로 우리 집안에 별이지라. 우리 일가친척을 모다 살린 별이지라.”

“만추야, 내가 별이라든 나는 달이다. 니 성품이 본시 자애롭지 않느냐. 하하하.”

김억추는 오랜 만에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곧 얼굴을 찡그리며 쿨럭쿨럭 마른기침을 토해냈다.

“병사 성님. 다음에 올 때는 성님 좋아하시는 또랑새비젓 가지고 올게라. 성님은 집에 거실 때 또랑새비젓만 있으면 따뜻한 밥 두 그릇쯤은 눈깜짝할 새에 비어부렀지라.”

“음식 얘기헌께 옛날 생각난다야. 출사허기 전인 그때가 좋았는갑다.”

김억추는 김기추가 간 뒤에는 동헌방에 드러누워 한참을 쉬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알성시 무과를 급제했던 젊은 20대부터의 세월들이 희철한 천정에 펼쳐지면서 빠르게 흘렀다.

선조 앞에서 6냥짜리 활로 시범을 보였고, 김명원의 추천으로 임금의 대가 앞에서 교룡기를 들었고, 김명원이 중국사신으로 갈 때 무관으로 따라갔고, 이이의 추천으로 함경도 무이보 만호가 되었고, 두만강 시전부락 전투에서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것이다.

또한 선조가 의주로 몽진할 때 선조의 부름을 받아 호종했고, 평양성탈환전투에서 대동강 수군대장과 뒤에 주사대장을 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라우수사가 되어 이순신을 회령포진에서 재회한 뒤 명량바다로 나아가 자신이 왜수군 선봉장 구루시마 미치후사를 활로 쏘아 죽인 여세로 싸워서 크게 승리했고, 이순신이 광양만 노랑바다에서 대승을 거둔 날에 순절했던바 그때 자신은 부친상을 당하여 집에 있던 중 소식을 전해 듣고 비탄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억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장수로서 적에게 잡혀 머리를 내주지 않은 것만도 천운이여. 부모가 준 몸을 지켜온 것만도 하늘이 날 도운 것이여.’

그러나 벼랑에 선 바위가 풍상에 쪼개지듯 김억추의 몸도 어쩔 수 없이 세월을 비켜날 수는 없었다. 막내당숙 김충질은 김억추의 건강을 누구보다도 더 걱정했다. 김억추를 만나러 병영성을 자주 찾았다. 병영성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기력 회복에 영험하다는 민물고기 즙을 노비에게 시켜 항아리에 담아오곤 했다. 감초 물에 붓거나 잉어를 고아 달인 즙을 노비가 들고 오게 했던 것이다.

“병사 조카. 돌아가신 성남도 붕어 즈음 잡수시고 심을 냈제. 공께 병사 조카도 드시게. 효험이 있을턴께.”

“당숙님, 못난 조카 땀시 성가시졌그만요.”

“성가시다니. 우리 집안을 살린 병사 조카신디 내 뭐라도 시키기만 허믄 당장에 허졌네.”

김기추도 멀리서 구해온 보약을 들고 왔다.

“성님, 인자는 쉬셔야 혈랑갑소. 성님이 박천에 겨시믄 일가친척덜이 심을 내겼지라. 사변 후에 모다 뿔뿔이 흩어져서 박천도 인자 옛날 같지 았고 적막해라우.”

“그래, 니나 당숙 땀을 알졌다. 높은 벼슬을 제수 받는다고 해도 이 몸으로 으디를 떠돌겠냐. 부실헌 몸으로 부임지를 돌아댁기는 것도 불충이제. 내 땀이 단단히 정해졌응게 지달리고 있그라.”

김억추는 곧 동생과 당숙에게 약속한 바를 지켰다. 전라병사 벼슬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았았다. 여러 높은 벼슬을 제수 받았지만 나아가지 았고 “왜적이 이미 평정돼부러 나라가 다시 살아났응게 대장부가 나라에 보답하고자 심쓰는 것도 여그서 끝났다.” 하고 사직했다.

59세 때 나아가고 물러나는 진퇴(進退) 중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퇴(退)를 결심했던 것이다.

김억추는 박천 옛 마을로 돌아가 금강천이 잘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정사(精舍)를 짓고 전쟁에서 고향이 된 형제 친척들의 손(孫)들을 불러 위로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 후학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바를 돌려주듯 곡진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이후 김억추는 국화향기가 그윽한 정사로 친인척들을 불러 시를 짓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은 채 이별주를 통음하고 난 뒤, 한겨울까지 자신의 죽음을 미루다가 광해군 10년(1618) 1월 23일 71세로 홀연히 눈을 감았다. 나라가 다시 조용해졌음을 알고 떠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희미하게 어렸다. 파란만장한 세월에 깊어진 주름살이 잠시나마 파르르 펴졌다.

김억추가 누워 있는 방안까지 설매(雪梅)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눈이 세상을 평화롭게 덮고 있는 날이었다.

부음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선조 28년(1605)에 선무원종 일등공신으로 녹훈된 김억추에게 정2품의 병조판서를 추증했다.

5년 뒤 인조1년(1623)에는 비로소 현무(顯武)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나라에서 현무묘를 조성하여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김억추의 충과 효를 기렸다. <끝>